

주간농업·농촌동향 2009년 농지 전용실적

※ 6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된 「2009년 한 해 동안 농지 2만 3천ha 타용도로 전용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2010.07.05 미래정책연구실

□ 농지전용 면적 및 건수

- 2009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**22,680ha**임.
 - 이는 2008년(18,215ha)에 비해 24.5%(4,465ha)가 증가한 규모로 역의도 면적(약 848ha)의 약 27배에 해당함. 또한 전국의 시·군 중에서 경지면적이 14번째로 큰 전남 영암군의 전체 경지면적(22,699ha)과 비슷한 규모임.
- 1995년 이후 연간 농지 전용면적은 1만 5천ha 수준을 유지해왔는데, 2009년의 농지전용 면적은 가장 많은 농지가 전용된 2007년의 24,666ha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임.
 - ('05) 15,659ha → ('06) 16,215 → ('07) 24,666 → ('08) 18,215 → ('09) 22,680
 - ※ 2007년에는 세종시·혁신도시·기업도시 등 대규모개발에 5,722ha 전용
- 2009년 농지전용이 2008년보다 증가한 것은 **도로·철도 등 공공시설 설치와 산업단지 조성 등 공장 설치**를 위한 농지전용이 많았기 때문임.

<2009년 농지전용 면적 및 건수>

구분	2005	2006	2007	2008	2009	증감(%)	
			(A)	(B)	(C)	B/A	C/B
면적(ha)	15,659	16,215	24,666	18,215	22,680	△26	25
논	8,743	8,159	14,380	9,977	12,867	△31	29
밭	6,916	8,056	10,286	8,238	9,813	△20	19
건수(건)	65,188	63,167	60,954	63,765	59,280	5	△7

□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

-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은 **도로·철도 등 공공시설에 9,427ha, 산업단지 등 공장설치에 5,370ha가 전용**되어 공공시설과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이 14,797ha로 전체 농지전용 면적의 65%를 차지함.
- 도로·철도·항만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은 **고속도로 신설, 호남고속철도 및 동해선철도 신규 착공** 등에 따라 증가하였음.
 - 공공시설 : ('00) 4,059ha → ('05) 7,396 → ('08) 8,369 → ('09) 9,427
 - 울산-포항간 고속도로 : 농지면적 100ha(진흥지역 38)
 - 호남고속철도(오송-광주) : 농지면적 447ha(진흥지역 250)
 - 동해선(울산-삼척간) 복선전철 : 농지면적 373ha(진흥지역 211)
- **국가산업단지(4개소)와 일반산업단지의 조성** 등으로 공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.
 - 공업시설 : ('06) 1,334ha → ('07) 2,249 → ('08) 2,490 → ('09) 5,370
 - 국가산업단지(2009년, 4개소) : 대구 사이언파크, 광주·전남 빛그린, 구미 하이테크밸리, 포항 블루베리 등에 포함된 농지면적 1,450ha (농업진흥지역 517ha)
- 반면 **택지개발**을 위한 농지전용은 2008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쳤고, **농어업용시설 설치**를 위한 농지전용은 감소 추세가 계속 되었음.
 - 농어업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감소는 2007년 7월부터 축사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·시행했기 때문임.
 - 주거시설 : ('06) 3,517ha → ('07) 3,949 → ('08) 2,424 → ('09) 2,632
 - 농어업용시설 : ('06) 2,442ha → ('07) 1,570 → ('08) 893 → ('09) 849

<2009년 용도별 농지전용 면적>

단위:ha

구분	2005	2006	2007	2008	2009	증감(%)	
			(A)	(B)	(C)	B/A	C/B
합계	15,659	16,215	24,666	18,215	22,680	△26	25
공공시설 (도로·철도·항만 등)	7,396	5,593	11,961	8,369	9,427	△30	13
주거시설 (단독주택·택지 등)	2,340	3,517	3,949	2,424	2,632	△39	9
광·공업시설 (공장·산업단지 등)	862	1,334	2,249	2,490	5,370	11	116
농어업용시설 (농업용창고·양식장 등)	2,245	2,442	1,570	893	849	△43	△5
기타 (근로생활·유통시설 등)	2,816	3,329	4,937	4,039	4,402	△18	9

○ 농지전용 면적 중에서 **농업진흥지역 농지**는 2008년보다 106% 증가한 **8,551ha**이며, **농업진흥지역밖 농지**는 14,129ha임.

- **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이 증가**한 것은 첫째,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단지·택지 등 대규모 개발수요가 집중되고, 둘째,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2008년 6월 폐지되었기 때문임.

· 진흥지역 농지전용 : ('05) 4,123ha ('06) 3,953 ('07) 9,688 ('08) 4,145 ('09) 8,551

○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조성을 할 수 없지만,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함.

주간농업·농촌동향 **쇠고기 이력제 지도·단속 결과**

※ 6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된 「쇠고기 이력제 단속 1년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.

□ **개요**

- 단속기간: 2009년 6월 22일 ~ 2010년 6월 21일(1년간)
- 단속대상 및 방법
 - 2009년 6월 22일 이후 도축되어 7만개의 식육판매업소에 판매 중인 쇠고기
 -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, 위반자 처벌
 -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도축시 보관하고 있는 쇠고기와 DNA일치 여부 검사

□ **쇠고기 이력제 단속 결과**

- 현재까지 71,423개소에 대한 지도·단속을 실시한 결과, **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47개소,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880개소, 총 1,627개소**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음.
- 특히, 현장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도축단계에서 채취·보관중인 샘플과 DNA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DNA동일성 검사와 한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였음.
 - **유전자 분석**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,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5개소는 추가로 형사입건, 고발 처분하였음.
 - 원산지 거짓표시(호주산→국산), 식육의 종류 거짓표시(육우·젓소→한우)

<쇠고기 이력제 지도·단속 결과>

연도	지도·단속 업소수	쇠고기 이력제 위반 내역					DNA검사 결과 원산지, 식육의 종류 위반
		거짓표시	미표시	장부 미기재	계	과태료 부과액	
'09(6-12)	개소 41,808	개소 304	개소 656	개소 7	개소 967	천원 47,100	개소 3
	(13,677)	(141)	(21)	(7)	(169)	(47,100)	
'10.6	29,615	443	135	82	660	190,640	4
계	71,423	747	791	89	1,627	237,740	7

주 1) ()내서는 '09.10.6이후 본격적인 단속시 적발, 과태료를 부과한 것임.

2) 처벌기준: 이력제 위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, 원산지 위반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, 식육의 종류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
○ 이력제 시행 후부터는 원산지를 둔갑하려면 연관된 **개체식별번호**까지 거짓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대폭 감소하고 있음.

- 시행 전('08.6~'09.6)에는 47,468개소를 조사, 129개소를 적발(0.3%)하였으나 시행 후에는 69,837개소 조사, 77개소 적발(0.1%)

○ 이로 인해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우고기 수요증가와 가격안정에 기여함.